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 23주일
제34권 41호(가해) 2014-9-7

[묵상]



...그가 네 말을 들으면 네가 그 형제를 얻은것이다...

사랑이란 이타이러한 것이다 라고 설명은 할 수 있을지언정
난 정말로 사랑의 삶을 살고 있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을 외치면서도 실제 생활에서는 너무나 쉽게,
잘못한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고 버립니다.

또 다른 이웃이 또 다른 잘못을
또 다시 멀리하고 또 다른 이웃을 찾고...
버리고... 찾고...
결국엔 자신마저 멀리하게 됩니다.

참 사랑이 없는 것이고
결국 사랑으로 모인 형제자매라는 말은 거짓말이고
헛말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거짓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잘못된 이웃에게 다가설 것을 요구합니다.
먼저 나부터 이웃에게 다가서야 한다는 요구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우리의 권리가 아니라 의무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합시다.

-오-

petrus3@hanmail.net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213)222-3168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미사

월요일	새벽미사	오전	6:30
화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미사	오전	8:30
토요일	신심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오후	8:30 7:00
주일	아침미사 학생미사(영어) 낮미사	오전 오전 오전	7:30 9:30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레지오 마리아	오후 8:00
목요일	성시간(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뜨레아(4째주)	저녁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렉시오 디비나) 소년 레지오 마리아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6:00 오후 7:00
토요일	제대회 모임(첫토요일) 유아세례(작수달 4째토요일) 배론청년회 모임	오전 10:00 오후 6:00 특전미사후
주일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페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대건회 • 꾸리아 3째주 - 모임의 날 • 요셉회 • 사목회장단 4째주 - • 사목회 • 빈첸시오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45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3:00

-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30분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오향숙 마우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의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미사	(연)민찬기 요한 (생)김석기 스테파노
주 일 낮미사	(연)이경용 야고보, 이운조 클라라, 이현호 요한, 고준희 제임스, 박무성, 전시웅 요한, 이명자 로사, 김차욱 요셉 & 김복남 마리아, 엄익수 바오로, 이철우 야고보, 이종혁 베드로, 홍관 요셉, 김옥순 소피아, 김시형 시릴로, 김성일 바오로 (생)엄세중 그레고리오, 변혜경 올리안나, 석순영 아네스, 김소영 요안나 & 김혜영 사비나 & 김은영 켈마, 권진우, 김남호 율리오 & 최운정 레지나, 이정우 바오로, 김기준 안젤라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에제키엘 예언서(Ezekiel) 33,7-9

화답송 ○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어서 와 주님께 노래 부르세. 구원의 바위 앞에 환성 올리세. 감사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세. 노래하며 그분께 환성 올리세.○

○어서 와 엎드려 경배드리세. 우리를 내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세. 그분은 우리의 하느님, 우리는 그분 목장의 백성, 그분 손이 이끄시는 양 떼로세.○

○오늘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그리바에서처럼, 마씨의 그날 광야에서처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거기에서 너희 조상들은 나를 시험하였고,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떠보았다.”○

제 2독서 로마서(Romans) 13,8-10

복음 ○ 알렐루야.

환호송 ○하느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네.○

복음 마태오(Matthew) 18,15-20

영성제송 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하느님, 제 영혼이 당신을 그리나이다. 제 영혼이 하느님을, 생명의 하느님을 목말라 하나이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입당	364	192	249
봉헌	382	269	254
성체	424	302	283
파견	423	345	343

올바른 성령 이해

성령과 색인

“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 영을 부어 주리라” (요엘 3,1).

제1장 성령은 누구신가?

3. 교회와 성령

1) 내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영

두려움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데에 큰 장애물이다. 많은 유대인들이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바리사이들 때문에 회당에서 내쫓길까 두려워 그것을 고백하지 못하였다.” (요한 12,42) 베드로 사도 역시 사람에게 대한 두려움 때문에 스승을 배반하였고(마르 14,66-72; 요한 18,17.25-27), 다른 제자들도 같은 이유에서 수난의 시간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마르 14,50; 요한 16,32) 더구나 부활 이후에도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요한 20,19). 하지만 사도들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모든 두려움을 떨쳐 버리고 대담하게(사도 2,29; 4,13.29.31)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성령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그들을 내적으로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이다.

성령으로 가득 찬 사도들은 자신 있게 그리스도를 증언하였고, 바로 이 때문에 박해를 당한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이들이 박해에 굴하지 않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사도 4,1-31; 5,17-42) 특히 스테파노는 성령의 능력으로 죽음의 순간에도 그리스도를 증언한다. 그는 유대인들이 완고하게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다고 책망하는데, 이미 그들의 조상도 예언자들과 의인들을 박해하였고, 그들 자신은 참된 의인의 살해자가 되었다는 것이다.(사도 7,51-52) 스테파노는 확신에 찬 말 때문에 결국 죽임을 당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처럼(루카 23,34) 박해자들을 용서하면서 숨을 거둔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목숨에 대한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리스도를 고백하도록 내적인 변화를 일으키신다. 그래서 에페소에서 저자는 복음의 신비를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성령께 기도하고 간구해 주기를 신자들에게 청한다(에페 6,18-19).

성령께서는 그리스도 신앙인들에게 희망을 심어 주시어, 현재에서 겪는 고난 때문에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신다. “성령을 첫 선물로 받은 우리 자신도 하느님의 자녀가 되기를, 우리의 몸이 속량되기를 기다리며 속으로 탄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희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로마 8,23-24) 마지막 날에는 생명이 결국 죽음을 이길 것인데, 이를 마련해 주신 분이 하느님이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 주신 것이다(2코린 5,5). 미래의 영광에 대한 희망을 심어 주신 성령께서는 나약한 인간을 도와주시는 분이기도 하다. “성령께서도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할 줄 모르지만, 성령께서 몸소 말로 다 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로마 8,26) <◆계속>

혼자가 좋다? 함께가 좋다!

우리는 함께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혼자 있으면 외로워 합니다. 그래서 친구도 사귀고, 결혼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막상 함께하다 보면 우리는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은 죄를 짓고, 그 죄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런데 상처를 받은 사람 입장일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내가 상대방보다 힘이 세다면 가서 뒤통수를 딱 치거나, 힘이 약하면 피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뒤통수를 치거나 피한다고 관계가 회복될까요? 사실 화해를 위한 노력은 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화해를 위해서는 대화를 해야 하는데 대화를 하기 위해서 함께하는 것조차도 힘들게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또 힘들어도 대화의 자리를 마련했는데 내 말을 듣지 않거나 혹은 상대방이 핑계나 변명만 늘어놓는다면 관계는 더 악화될 것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혼자가 낫다거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지내려고 합니다. 이것은 하느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화해를 위한 단계적인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먼저 단들이 만나서 얘기하고, 안되면 한 두사람이 함께 얘기하고, 다시 안 되면 교회에 알리고, 또 다시 안 되면 다른 민족 사람이나 세리 취급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화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민족 사람이나 세리 취급을 하라는 것은 관계를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리를 제자로 부르셨고, 이방인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안되는 상황이지만 다음에 더 좋은 기회를 가져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에 반해 대화가 잘 되어 화해를 만들어내면 서로의 관계는 과거보다 더욱 '다져질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많은 '갈등'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통한 소통이 안 되어 '일방적'으로 일을 처리하다가 오히려 더 망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북한이나 이웃나라와의 관계, 쌍용자동차, 용산 철거민, 강정 해군기지, 밀양 송전탑, 그리고 세월호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부부 사이나 친구, 이웃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끼리, 같은 민족끼리 상처 주지 맙시다. 서로 '보듬고, 안아주고, 감싸주면서' 하나가 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로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갈등을 일방적인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대화를 통한 소통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 됨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이렇게 하나 된 우리가 함께 청하면 하느님은 무엇이든지 들어주실 것입니다.

주식 연휴 기간에 오랜만에 본 가족들과 다투지 말고 화목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김지형 신부/삼성서울병원 원목사제

잡초

생명력이 질긴 잡초를 제거하는 방법은
잡초가 스스로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쓰러질 때라고 합니다.
격려차 하는 칭찬에 기고만장 하다가,
작은 성취에 안하무인 하다가,
이정도면 나를 잘 살고 있는 거라며
목에 힘 뻗뻗하게 자아도취 하다가,
메모해둔 이 글을 보면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이영 아네스 / 수필가

이번주 전례봉사가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태훈 아오스딩	이호미 에리자벳	남성철 베네딕도
제1독서자	조병준 폴로렌시오	이민상 요한	이영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정진욱 노엘	이순자 비비안나	정명모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런스 동 2,3반

다음주 전례봉사가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곽수진 보나	신덕례 테레사	정광미 프란체스카
제1독서자	이범주 다니엘	박진수 스테파노	유철희 바오로
제2독서자	곽수민 히메리오	박혜경 레나타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토런스 서 2반

공지사항

◆ 주일학교 교사모집합니다

성당의 미래인 아이들과 함께 사랑과 신앙으로 봉사해주실 분을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과 연락 부탁드립니다.

- 문의 : 주일학교 교장 김낙기 바오로 ☎(310)709-3343

◆ 백삼위 한국학교 개학 및 수업시간변경

- 수업시간 : 12시 ~ 3시
- 학부모 간담회 : 오후 1시 30분 ~ 2시, 한국학교 각 교실
- 추석행사 : 오후 2시, 친교장
- 한국학교에서 함께 봉사하실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213)700-9399, E-mail : 103skecks@gmail.com

“새 신자 환영합니다.”

남가주 소식

◆ LA 성 아그네스 천주교회 : 제 26기 커피교육안내

- 일시 : 9월 7일(주일) 낮 2시~10시,
9월 11일(목) 저녁 6시~10시
- 교육방법 : 양일중 택일하여 하루 강의듣고 30회실습
- 수강료 : \$200
- 문의 : ☎(323)731-4433 (사무실)

◆ 제3기 성 요셉 아버지학교

- 일정 : 9월 7, 14, 21, 28일 (4주일)
- 장소 : LA 성아그네스 천주교회
- 문의 : 오재민 바오로
☎(562)505-8070

◆ 변형강학회 (순교자 양성)

선조들의 삶을 통해 자신의 뿌리를 알아가고 정체성을 찾아 성숙한 신앙의 증거자가 되기 위한 공부와 기도과정

- 강학내용 : 한국, 중국, 일본 천주교회사, 성지순례, 영성심화
- 첫 강학일 : 9월 15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
- 장소 : 한국순교복자수녀회 미주지부내 순교자영성센터
16276 California Ave. Bellflower, CA 90706
- 문의 : ☎(562)461-8100

◆ 제18회 남가주한인 가톨릭 미술가회 작품전

- 리셉션 : 9월 6일 (토요일) 오후 5시~8시
전시회 기간 : 9월 6일~19일
- 장소 : Lee & Lee Gallery
3130 Wilshire BL #502
L.A., CA 90010
수익금의 일부는 작은예수회에 성금합니다
- 문의 : ☎(213)365-8285

☺ 서로 인사 합니다. ☺

소공동체 9월 반모임

소공동체 부 장 김명재 아가다 (310)866-8778
차 장 박은혜 클라우디아
차 장 김희연 루시아 정병욱 율리아

구역/장	반	반 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강순복 요세피나 991-4838	최성자 카타리나 991-4838 9/20(토) 오후 6시
	2	김찬구 요한 701-6343	박선화 안나 325-3888 9/13(토) 오후 7시
	3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9/12(금) 오후 7시 30분 성당
토런스 서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	강인모테오도시오 780-3258	강인모테오도시오 780-3258 9/21(일) 본당의날 행사
	2	이호미 엘리사벳 991-8556	이호미 엘리사벳 991-8556 9/21(일) 본당의날 행사
	3	정광미 프란체스카 617-1132	정광미 프란체스카 617-1132 9/21(일) 본당의날
토런스 남 최옥희 데레사 508-2912	1	김준 방지거 625-3312	엄영숙 마리아 625-3312 9/21(일) 본당의날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박광자소화데레사 634-6923 9/12(금) 오전 10시 30분 성당
	3	송미숙 미카엘라 850-2822	송미숙 미카엘라 850-2822 9/13 (토) 오후 6시 30분
토런스 북 조화숙 안젤라 213 272-8393	1	정병욱 율리아 404-1607	이 북임엘리자벳 905-2225 9/15 (월) 오후 7시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권태만 실베스텔 989-9077	1/2	박진수 스테파노 749-3151	김금자 데레사 749-3151 9/13(토) 오후 7시
	3	1,2반과 같음	
P. V. 남경희 베네딕다 384-3289	1	박종선 리비나 213-700-6983	남성철 베네딕도 408-1443 9/12 (금) 오후 7시
	2	유지아 클라라 793-6157	배진영 프란치스코 793-6157 9/12 (금) 오후 7시
	3	송인선 안젤라 503-927-0770	송인선 안젤라 503-927-0770 9/6(토) 정오 12시 성당
	4	이귀란 아녜스 617-3568	유현주 마리아막달레나 617-3568 9/9 (화) 성당

이번 주 단체 모임

구역장/반장회의 오후 1시

다음주 단체모임

제단체 모임의날 오후 1시

한가위 차례(茶禮) 예식

천주교 가정 제례는 조상에 대한 효성과 추모의 전통 문화를 계승하는 차원에서 그리스도교적으로 재해석한 예식입니다.

따라서 조상 숭배의 개념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자 가정에서는 기일 때에는 가정의 제례보다 우선하여 위령 회사를 봉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135조 1항 참조)

준 비

1. 마음과 몸의 준비 : 고해성사를 통해 마음을 깨끗이 하며, 복장을 단정하게 갖는다.
2. 상차림 : 음식을 치리지 않고 단순하게 주요 예절만을 위한 상을 차릴 수도 있다. 상 위에는 십자가와 조상(고인)의 사진이나 이름을 모시며, 촛불을 켜고 향을 피운다. 음식상을 차릴 때에는 형식을 갖추려 하지 말고 소박하게 평소 가족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차린다.

시작 예식

성 호 경

시작성가

가톨릭 성가 50번, 54번, 227번, 436번, 462번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한다.

시작기도

✦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한가위 명절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 조상님들을 기억하며 차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요한 11, 25-26)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과 부활의 주인이신 주님께 조상님들과 우리 자신을 봉헌하면서 청성된 마음으로 이 예절에 참여합니다.

(잠시 침묵 후에)

✦ 주님,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주님의 종()를 받아들이시어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시며 성인들과 함께 주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또한 저희도 주님의 뜻 안에서 서로 화목하며 사랑할 수 있게 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나이다.

◎ 아멘.

말씀 예절

성경 봉독

마태 5, 1~12, 요한 14, 1~14, 로마 12, 1~21,
1코린 13, 1~13, 에페 5, 6~20, 요한 15, 1~12
가운데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가장의 말씀

가장은 조상(고인)을 회고하면서 가훈, 가풍, 유훈 등을 가족들에게 설명해 준다. 또한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가족들이 신앙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도록 권고한다.

추모 예절

분향과 배례

가장이 대표로 향을 피우고 참석한 모든 사람이
다함께 큰절을 두 번 한다.

위령 기도

긴 위령 기도를 바치거나 노래로 부를 때에는
『상장 예식』(또는 『위령 기도』)을 참조한다.
(가톨릭 기도서 P.74~79)

마침 예식

마침성가

가톨릭 성가 50번, 54번, 227번, 436번, 462번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한다.

성 호 경

음식 나눔

온 가족이 한자리에 앉아 음식을 나누며 사랑과 친
교의 대화 시간이 되도록 한다.